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Effects of Universities' Startup Support Program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정덕화
배재대학교

Duk-Hwa Jung(jungdh@pcu.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활성화를 제고하는데 있어 GEM 모델을 기반으로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가정신 및 창업기회인식의 선행변수와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하여 이들이 창업의도와외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4년제 대학생 364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 요인 중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연구개발이전, 창업문화가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 창업컨설팅이 창업가정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인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효능감 수준에 따라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연구개발이전, 창업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재설계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창업지원프로그램 | 창업가정신 | 창업기회인식 | 창업효능감 | 창업의도 | GEM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programs aided by university what reflected in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model and was establish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urrent university students. Total of 364 suitable sample data were used to empirical analysis hypotheses.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through analysis of the structural mode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of universities' startup support programs,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consulting, R&D transfer, and entrepreneurial cul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recogni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Second,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consulting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Third, the parameters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d entrepreneurship positively influenc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refore, University should support entrepreneurial education, R&D transfer, entrepreneurial consulting and makes entrepreneurial culture intensely for vitaliz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 keyword : | Startup Support Program |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GEM |

* 본 연구는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8년 02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3월 20일

수정일자 : 2018년 03월 20일

교신저자 : 정덕화, e-mail : jungdh@pcu.ac.kr

I. 서론

지난해 3년 만에 3% 성장률로 복귀(3.2% 예상)하고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 달성은 물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까지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세 지속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년실업 문제만큼은 정부의 난제 중 난제로 남을 태세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일찌감치 일자리 정부를 천명하고 올해 19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청년실업이 좀처럼 나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에 인한 구직경쟁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업종별 낮은 고용창출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다각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러한 현실에 비춰어 볼 때 사회, 경제 분위기에 따라 현 정부와 대학에서도 청년실업을 해결을 위해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취업률 상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의 취업상황을 대학알리미에 정보를 공시케 하여 창업한 학생을 취업으로 본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책에 따라 대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기관의 청년창업 정책에 힘입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창업은 정부 및 지자체, 대학의 여러 창업지원 제도를 발판으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기이고 창업에 관심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을 통한 창업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들이 제 각각이어서 혼선을 빚었으며 지원 수혜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창업의도 활성화 노력에 비해 대학 내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체계 구성 및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2].

지금까지 창업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일반 창업자에 대한 환경적·경제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초점이 두

었고,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는 실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생창업 지원프로그램과는 상이하게 심리적·개인적·배경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GEM 모델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학생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원에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창업프로그램 체계구성에도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수립

1.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가정신 간의 관계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모델을 토대로 대학차원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기회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는데 있다.

GEM 모델은 1999년 미국의 Babson College과 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이 공동으로 매년 각 국가별 창업가들의 기업 활동수준을 지수화한 초기총창업활동(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을 발표한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적으로 GEM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3][4]. GEM의 결성 목적은, 창업활동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창업의 유형과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고, 창업가정신과 경제발전 구조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며, 창업가정신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밝혀내서, 국가 경제발전과 창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5][6].

GEM 모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구조를 거치면서 창업체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를 개념화하였다. 이는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가의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역량에도 작용하여 기업의 설립과 소멸정도를 결정짓고, 궁극적인 목적은 활발한 창업활동을 기반으로

로 국가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다[6][7].

본 연구에서는 GEM 모형의 창업체제여건을 대학의 창업지원활동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였다. 기존 GEM 모델에서 정부의 정책항목 중 정부가 일반인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항목으로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제외시켰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창업시설, 연구개발이전, 창업문화 등 6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부와 대학주도로 창업 지원정책 확산과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창업가정신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논의들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기업가정신으로도 불리는 창업가정신과 관련된 대표적 학자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Schumpeter(1934)가 강조한 것으로, 미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불확실한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키우려는 분명한 자세나 의지로 보았다[10]. Schumpeter 이후로 Timmons(1994)는 창업가정신을 창업기회인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고[11], Morris and Lewis(1995)는 창업가적 태도와 행동의 근간으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연구하였다[12]. 이렇듯이 여러 학자들이 관점에서 다양하게 창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이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업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진 창업가적 마인드라고 정의하였다[13].

하지만, 창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가정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국내외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창업가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창업컨설팅 지원은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창업시설 지원은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연구개발이전 지원은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창업문화 지원은 창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

창업기회란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자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중요 역량 중 하나이다[6][15][16]. 창업기회인식이란 창업가 자신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창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강재학과 하규수(2015)는 창업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창업기회인식을 들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성패는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하였다[9]. 또한, Kim(2013)은 창업가에게 창업기회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지된 창업기회를 실질적인 창업의도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하여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아이템과 콘텐츠사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으며, 창업기회인식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창업기회인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기회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기회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창업컨설팅 지원은 창업기회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기회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창업시설 지원은 창업기회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연구개발비전 지원은 창업기회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6: 창업문화 지원은 창업기회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창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

창업가정신이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업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진 창업가적 마인드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창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 한다[8][12]. 창업가정신은 끊임없이 기회를 탐색하고, 계산된 위기를 감수하며, 창업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열정 등의 특성이 창업가에게 필요하다. 또한, 창업가정신을 통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탐색함으로써 창업활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8].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을 창업역량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창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간에는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본 연구에서도 창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식된 창업가정신은 창업기회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창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창업의도 간의 관계

윤남수(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업가정신은 창

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확실한 창업환경에서의 도전적, 진취성인 창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7]. 특히, 창업가정신의 요인 중에서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8][17]. 또한, Shin and Ahn(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18]. 이러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식된 창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창업의도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요인을 포착하여 창업할 기회를 인식하는 사전단계를 거치게 되며, 창업기회는 창업지원 요인이 실질적인 창업의도로 연결되는데 있어서 매개변수로 사용되곤 한다[19]. 강재학과 양동규(2016), 하규수와 윤백중(2011)은 창업기회인식을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좋은 사업기회로 인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제시하였다[9][20]. 이는 창업자의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이 창업활동에 앞서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두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식된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창업효능감의 조절역할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란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확장된 개념이며, 창업자로서 창업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과 행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창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21][22]. 또한, 창업효능감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환경대응과 도전정신을 통해 창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열정과 확신의 정도도

써, 대학생의 창업의도에서도 중요요인으로 인식된다 [21][23]. 창업효능감이 높은 예비창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창업기회를 잘 포착하여 창업의도와 연계시킬 가능성 크며,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활용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열정이 있으므로 창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21]. 이처럼 창업효능감은 불확실한 창업과정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다는 창업의도와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간의 조절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의 창업효능감과 창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창업의도에 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창업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창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이다.

H7: 창업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창업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지원요인, 창업가정신 및 기회인식,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창업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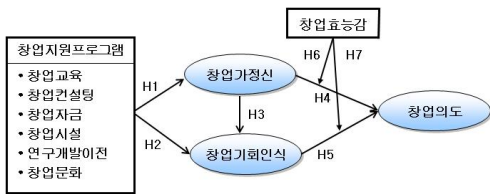


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III. 연구설계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10월 한 달 동안 대전·충청지역

거주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410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 46부를 제외하고 최종 364부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을 통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과 AMOS 16.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특성	구분	N	(%)
학년	1학년	75	20.6
	2학년	184	50.5
	3학년	68	18.8
	4학년	26	7.1
	졸업생	11	3.0
성별	남자	175	48.1
	여자	189	51.9
전공 계열	인문대학	38	10.4
	사회과학대학	28	7.7
	자연과학대학	21	5.8
	경상대학	40	11.0
	공과대학	77	21.2
	농업생명과학대학	77	21.2
	생활과학대학	12	3.3
	예술대학	15	4.1
	사범대학	29	8.0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2	3.3
	기타	15	4.0
희망 창업 분야	제조업	21	5.8
	전문, 과학, 기술, IT	129	35.4
	보건 및 사회복지	20	5.5
	예술, 스포츠, 여가	51	14.0
	숙박, 음식점업	53	14.6
	도소매(온라인쇼핑몰 포함)	51	14.0
	기타	39	10.7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 단위들의 측정항목은 [표 2]와 같이 대부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측정항목으로 설계되었지만, 일부 항목은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각 문항별로 Likert(5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개념		조작적 정의	측정 변수	관련 문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교육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관련 정보와 기술을 가르치는 정도	Edu 1-3	장수경·양석준[6], 장덕주[8], 이정란 [23], Kraaijenb rink 등[25]
	창업 컨설팅	창업 전문가의 창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Con 1-3	
	창업 자금	창업에 필요한 자금정보와 실질로 지원하는 정도	Fun 1-3	
	창업 시설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장비, 도구 등의 설비를 지원하는 정도	Fac 1-4	
	연구 개발 이천	대학교수의 연구 지식 및 노하우를 이전하는 정도	R&D 1-3	
	창업 문화	주위에서 창업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주위 창업자들의 이미지 정도	Cul 1-5	
창업가 정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 혁신적인 방법, 진취적인 기업가적 마인드 정도	Ent 1-4	강제학 등[9], Turker 등[26]	
창업기회 인식	창의적으로 정보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시 장기회 인식정도	Opp 1-3	Lukes 등[19], 이정란 [23],	
창업 효능감	창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발되는 자신감과 창업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	Eff 1-5	하규수 등[20], 정대용 등[21]	
창업의도	어떤 동기에 의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발생되어 창업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결심	Int 1-5	장덕주 [8], 강제학 등[9], Turker 등[26]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 1차분석 결과

구성개념	최초 설문 항목 수	최종 선택 항목 수	α 계수
창업교육	3	3	.893
창업컨설팅	3	2	.826
창업자금	3	3	.935
창업시설	4	4	.917
연구개발이천	3	3	.923
창업문화	5	5	.859
창업가정신	4	4	.816
창업기회인식	3	3	.859
창업의도	5	5	.895
계	33	32	

표 4. 선행요인군의 재 추정결과

구성개념	요인 적재량	고유치	설명력	누적 설명력	α 계수
창업교육	edu3	.896	3.476	18.902	.893
	edu2	.870			
	edu1	.829			
창업컨설팅	con2	.818	3.415	15.625	.826
	con1	.802			
창업자금	fun2	.836	2.726	13.295	.935
	fun3	.829			
	fun1	.802			
창업시설	fac4	.850	2.704	10.970	.917
	fac3	.740			
	fac2	.826			
	fac1	.799			
연구개발이천	r&d1	.844	2.027	8.331	.923
	r&d3	.828			
	r&d2	.817			
창업문화	cul1	.807	1.838	5.820	.859
	cul4	.783			
	cul2	.757			
	cul3	.732			
	cul5	.732			

IV. 실증분석

1. 연구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1.1 1차 분석

연구단위별로 직각회전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요인적재량 0.6 이상과 요인설명력은 0.5 이상을 설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컨설팅요인에서 3번째 항목은 내적일관성이 부족하여 제거되었으며, 이 결과 남은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계산한 결과 모두

선행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이 6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창업문화요인을 측정하는 세 번째 측정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교차 적재(cross loading)되어 이를 제거하고 4개의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창업시설, 연구개발이천, 창업문화의 전체 누적 설명력은 72.943으로 나타났다.

표 5. 종속요인군의 재 추정결과

구성개념	요인 적재량	고유 치	설명력	누적 설명력	α 계수
창업가정신	ent1	.798	3.423	28.527	.816
	ent2	.782			
	ent4	.739			
	ent3	.685			
창업기회인식	opp2	.877	2.793	23.273	.859
	opp1	.813			
	opp3	.744			
창업의도	int4	.851	2.371	19.755	.895
	int5	.841			
	int3	.811			
	int2	.760			

결과변수만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의 의도대로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창업의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문항이 요인적재량 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제거하고 4개의 문항을 구조방정식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과변수를 구성하는 창업기회인식, 창업가정신, 창업의도 요인의 전체 누적 설명력은 71.554로 나타났다.

1.2 확인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이후 측정항목들이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위해 측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지수들이 $\chi^2=362.79$ ($N=364$), $p<0.002$, $GFI=0.912$, $AGFI=0.897$, $NFI=0.947$, $TLI=0.982$, $RMSEA=0.036$ 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기준에 부합되는 측정지수임을 확인하였다.

표 6. 연구단위들에 대한 확인요인분석결과

변수	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C.R.	AVE	개념신뢰도
창업교육	edu3	.731		.851	.887
	edu2	.816	.089		
	edu1	.868	.091		
컨설팅	con2	.776		.787	.856
	con1	.792	.085		
창업자금	fun2	.882		.873	.903
	fun3	.854	.063		
	fun1	.865	.053		
창업시설	fac4	.782		.833	.890

	fac3	.812	.069	12.994		
	fac2	.801	.072	13.098		
	fac1	.768	.072	12.043		
R&D이전	r&d1	.786			.769	.823
	r&d3	.723	.074	12.256		
	r&d2	.802	.069	13.245		
	cul1	.725				
창업문화	cul4	.731	.141	9.986	.702	.780
	cul2	.678	.102	9.662		
	cul5	.732	.101	9.234		
	ent1	.632				
창업가정신	ent2	.703	.126	9.045	.712	.846
	ent4	.708	.124	9.050		
	ent3	.736	.132	9.337		
	opp2	.766				
창업기회인식	opp1	.685	.089	10.134	.787	.830
	opp3	.784	.086	11.629		
	int4	.708				
창업의도	int5	.802	.103	11.269	.803	.883
	int3	.803	.115	11.281		
	int2	.789	.112	11.109		
	$\chi^2=362.79(N=364)$, $d.f=296$, $p=.000$, $GFI=.912$, $AGFI=.897$, $NFI=.947$, $TLI=.982$, $RMSEA=.036$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일치성 정도에 관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집중타당성을 확인하는 각 연구단위의 구성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각각 0.7, 0.5를 상회하는 값으로 나타나 측정모델의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각 연구단위들 간의 상관계수 값이 모두 연구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AVE의 제곱근(\sqrt{AVE})이 다른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델의 판별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각 연구 단위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개념	1	2	3	4	5	6	7	8	9
창업교육	1.000								
컨설팅	.549 (.044)	1.000							
창업자금	.579 (.049)	.508 (.042)	1.000						
창업시설	.530 (.048)	.466 (.041)	.546 (.032)	1.000					
R&D이전	.561 (.040)	.516 (.035)	.458 (.044)	.582 (.040)	1.000				
창업문화	.512 (.053)	.474 (.048)	.528 (.051)	.469 (.046)	.571 (.041)	1.000			

창업 정신	.504 (.056)	.452 (.054)	.497 (.061)	.480 (.053)	.495 (.049)	.509 (.047)	1.000		
기회 인식	.428 (.070)	.368 (.069)	.429 (.064)	.429 (.061)	.425 (.064)	.506 (.067)	.525 (.059)	1.000	
창업 의도	.412 (.064)	.323 (.056)	.403 (.060)	.389 (.055)	.435 (.063)	.501 (.065)	.569 (.061)	.572 (.053)	1.000

* P =.005 수준에서 유의적임, (S.E.)

H3	창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0.583 (0.131)	4.592	***	채택
H4	창업가정신 →창의의도	0.485 (0.162)	4.625	***	채택
H5	창업기회인식 →창의의도	0.428 (0.068)	4.247	***	채택

P<0.05, *P<0.01

2. 가설검정 및 해석

2.1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에 관한 가설검증

측정모형분석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각 변수를 가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389.35(N=364)$, 자유도(d.f)=336, $p=0.010$, GFI=0.912, AGFI=0.889, NFI=0.898, CFI=0.923, RMR=0.038, RMSR=0.056 등등으로 대부분의 지수가 권장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변수 간 관계에 관한 가설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S.E.)	C.R.	p	채택 여부
H1.1	창업교육 →창업가정신	0.468 (0.086)	3.685	***	채택
H1.2	창업컨설팅 →창업가정신	0.410 (0.137)	2.862	0.023	채택
H1.3	창업자금 →창업가정신	-0.221 (0.087)	-1.238	0.268	기각
H1.4	창업시설 →창업가정신	-0.115 (0.084)	-1.564	0.223	기각
H1.5	연구개발이전 →창업가정신	-0.089 (0.167)	-0.681	0.463	기각
H1.6	창업문화 →창업가정신	-0.041 (0.186)	-0.386	0.780	기각
H2.1	창업교육 →창업기회인식	0.452 (0.078)	2.509	**	채택
H2.2	창업컨설팅 →창업기회인식	0.387 (0.102)	2.206	**	채택
H2.3	창업자금 →창업기회인식	-0.163 (0.087)	-2.415	0.267	기각
H2.4	창업시설 →창업기회인식	0.088 (0.231)	0.653	0.468	기각
H2.5	연구개발이전 →창업기회인식	0.235 (0.086)	2.384	**	채택
H2.6	창업문화 →창업기회인식	0.482 (0.067)	5.235	***	채택

첫째,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가정신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검정 결과, 가설H1.1과 H1.2는 채택된 반면 가설H1.3-H1.6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기각된 이유는 아직 창업 생태계와 문화가 덜 조성된 상태에서 창업자금과 시설을 제공한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창업가정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교수로부터 이전받은 창업관련 연구 및 기술 자체가 어려워 예비창업자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장수경과 양석준(2014), Kraaijenbrink 등(2010)의 선행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둘째,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검정 결과, 가설H1.1, H1.2, H1.5, H1.6은 채택된 반면 H1.3, H1.4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장수경과 양석준(2014)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창업자금과 시설이 존재하여도 학생들이 창업 자체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창업과 관련된 기회인식이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으로 밝혀져 가설H3, H4, H5은 채택되었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불확실한 창업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로 다양한 도전과 위험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 기회인식과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강재학과 하규수(2015), Shin and Ahn(2015)의 주장과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2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H6은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가정했다. [표 9]을 보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는 비제약모델이(df=28)= 37.398, (p=

.412)로 비 적합수치를 보이고, 등가계약모델은(df=27)=39.233, (p=.401)의 수치로 나타났다.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1.835$, (p=.264), 자유도(Δdf)는 1을 보여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H7은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가정했다.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는 비계약모델이(df=39)=47.823, (p=.231)로 비 적합수치를 보이고 등가계약모델은(df=38)= 48.886, (p=.258)의 수치로 나타났다.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1.063$ (p=.867), 자유도(Δdf)는 1을 보여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표 9. 창업효능감에 따른 집단 간의 경로계수

경로	Model	χ^2	DF	P	$\Delta\chi^2$ (Δdf)	조절 효과
창업기회 인식→ 창업의 도	비계약 모델	37.398	28	0.412	$\Delta\chi^2=1.835$ ($\Delta f=1$), p=.264	없음
	등가계약 모델	39.233	27	0.401		
창업가 정신→ 창업의 도	비계약모 델	47.823	39	0.231	$\Delta\chi^2=1.063$ ($\Delta df=1$), p=.867	없음
	등가계약 모델	48.886	38	0.258		

※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자유도가 1일 때의 χ^2 임계치 값은 4.21

따라서 창업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가설H6과 H7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대학에서의 교육과 체험이 학생들의 창업 자신감과 마인드 형성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조절효과 검증 결과

경로	LOW(n= 180)			HIGH(n= 184)		
	표준 계수	C.R.	p값	표준 계수	C.R.	p값
창업기회인식→ 창업의도	0.357	3.863	0.001	0.221	2.326	0.002
창업가정신→ 창업의도	0.647	2.687	0.001	0.685	3.128	0.003

* P<0.05, **P<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모델을 대학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대학의 창업지원 요인을 6가지 요인(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창업시설, 연구개발이전, 창업문화)으로 선정한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선행변수가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업효능감에 따라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이 창업의도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지원은 학생들에게 창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수경과 양석준(201), 장덕주(2015)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창업교육은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도전의식이 발생하여 창업가 정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업컨설팅은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방법을 지원하여 창업가정신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의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연구개발이전, 창업문화 지원은 학생들에게 창업기회를 인식하게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덕주(2015), 이정란(2017), Kraaijenbrink 등(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로서 창업교육은 창업동아리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위한 멘토링을 통해서 창업기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며, 창업아이디어를 전문적 조언과 상담을 통해 각종 콘텐츠 지원 및 사업화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창업에 대한 기회인식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을 통하여 창업가정신이 증대되며, 이는 창업에 대한 기회인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 및 대학교수가 지식과 기술을 학생

에게 이전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업환경 인식을 돕고 학생 스스로 창업기회를 포착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창업문화를 고조시킴으로써 대학 내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하여 지원세력의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으로 창업기회인식을 고양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창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기회인식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재학과 하규수(2015), 윤남수(2015), Turker and Selcuk(2009) 등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대학생들이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을 통하여 창업가정신이 증대될 때 창업에 대한 기회인식이 증대되며, 창업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가적 역량과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유망아이템의 창업기회에 대한 관심이 높일수록 창업의도가 고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창업가정신 증대가 곧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증대로 연결 될 수 있다.

넷째, 창업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비교에서 창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인식 및 창업가정신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한정된 연구를 보완하고, 창업의도의 선행단계에서 창업효능감이 미치는 역할을 검증하였음에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GEM모형을 대학의 창업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GEM 모형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산발적으로 작용하는 대학의 창업지원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즉, 대학에서의 단편적인 창업지원요소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제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본 점은 학문적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상과 같은 시사점 및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해석 및 활용상 유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6가지의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기회인식, 창업가정신, 창업효능감에 따른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확인 하였지만, 독립변수 간의 인과모형에서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응답자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에 따른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가지 학생창업지원 정책 중 응답자가 경험하고 지원받았던 요소를 구분하여 연구를 확대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 중요도에 따른 구성요소별로 가중치 부여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학의 창업전담조직의 예산편성과 담당자의 프로그램 중요도 관심에 따라 프로그램의 가중비율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구성 비율에 따른 응답이 상이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적용되는 GEM 모델이 대학차원에서는 적용상 무리가 되는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확장성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정제된 창업지원프로그램 요인이 개발 보완되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news1.kr/search_front/search.php, 소득 3만불 시대도 해결 힘든 청년실업, 2018.1.6.
- [2] 김용태,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2호, pp.13-20, 2017.
- [3] N. Bosma, S. Wennekers, and J. E. Amoros,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Employees Across the Globe,” London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Vol.9, 2012.
- [4] P. Maria-Jose and R. Luisa,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t-collectivist Culture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Evidence fro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Vol.37, pp.23-37, 2011.
- [5] 양현봉, 박종복,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제159호, 2011.

- [6] 장수경, 양석준,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한 상업 교육 환경요인 구축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학 교육 환경에서의 GEM 모델의 적용,”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pp.1-23, 2014.
- [7] 반성식, 서상구, 송경모, 조동환, 박종해, 차민석, 박종복, *글로벌기업가정신 연구(GEM) 2012 연구보고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중소기업청, 2013.
- [8] 장덕주, *대학의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9] 강제학, 하규수,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4호, pp.1-12, 2015.
- [10] J. 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 [11] J. A. Timmons,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Innovation and Change, Vol.6, No.1, 1994.
- [12] M. H. Morris and P. S. Lewis,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29, No.7, pp.31-48, 1995.
- [13] 김정권, 양동우,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공모전 참여동기를 매개 변수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477-487, 2016.
- [14] H. Kim,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7, No.1, pp.263-271, 2012.
- [15] 문수영, 황보윤, “청년창업가의 창업기회인식 분석 및 기회탐색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6권, 제4호, pp.39-57, 2011.
- [16] 홍효석, 설병문,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8권, 제2호, pp.141-151, 2013.
- [17] 윤남수,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pp.1537-1557, 2012.
- [18] H. S. Shin and Y. Y. Ahn, “The Influence of Food Servi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erceived by Pre-Entrepreneur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8, No.2, pp.433-452, 2015.
- [19] M. Lukes and M. Jakl,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1*,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2012.
- [20] 하규수, 윤백중,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 pp.3406-3414, 2011.
- [21] 강제학, 양동우,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회인식인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1호, pp.493-507, 2016.
- [22] J. E. McGee, M. Peterson, S. L. Mueller, and J. M. Sequeira,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4, pp.965-988, 2009.
- [23] 이정란,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24] A. A. Gibb, “Entrepreneurship: Unique Solutions for Unique Environments. Is It Possible to Achieve This with the Existing Paradig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World Conference, Melbourne Australia, June, 2006.
- [25] J. Kraaijenbrink, A. Groen, and G. Bos,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Vol.9, No.1, pp.110-125, 2010.

[26] D. Turker and S. S. Selcuk,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33, No.2, pp.142-159, 2009.

저 자 소 개

정 덕 화(Duk-Hwa Jung)

중신회원



- 2006년 2월 : 충남대학교(경영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교수

<관심분야> : 신제품개발, CRM경영, 창업경영, 마케팅전략 등